

KCC, 현대그룹 인수 적극 나서나?

단순 투자목적의 주식매입 아닌 듯 ... 현대계열 주식 사들인 전력 있어

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사망 이후 미래가 불투명한 현대그룹을 금강고려화학(KCC)이 적극 돕고 나서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.

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막내동생인 정상영 씨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KCC는 8월20일 공시를 통해 19일 현대상선 주식 307만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. 현대상선 전체 주식의 2.98%에 해당되는 것으로 KCC는 현대엘리베이터(15.16%)와 현대건설(8.69%), 정몽헌 회장(4.9%)에 이어 현대상선의 4대 주주로 올라섰다.

KCC는 공시에서 주식매입은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현대상선이 현대아산, 현대택배 등 현대그룹의 지분을 고루 소유하며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해온 터여서 단순투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.

특히, 최근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 집중매입으로 현대그룹의 경영권 위기론이 불거져 나올 때 정상영 회장 주도로 현대가 계열사 9곳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16.2%를 매입해 급한 불을 끈 것으로 알려진 직후 나온 움직임이어서 더욱 주목된다. 일단 KCC의 현대상선의 주식 매입이 경영권 방어 차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.

KCC의 주식 매입 이전에도 현대상선은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건설, 정몽헌 회장, 현대백화점(2.31%), 우리사주(2.6%) 등 의결권이 있는 우호 주식의 합이 33%가 넘고 자사주도 12.6%에 달해 유사 시 충분히 대처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현대상선 측의 설명이다.

증권거래소에 따르면, 현대상선의 외국인 지분도 8월19일 기준 7.15%로 정몽헌 회장 사망 전(5.24%)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졌지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며, 8월4일(7.57%) 이후 오히려 감소세에 있어 다급한 상황은 아니었다.

현대상선 관계자는 외국인 보유비율이 10%를 넘은 적도 있었다며 경영권 방어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KCC의 주식 매입은 투자 목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.

그러나 일부에서는 KCC가 현대그룹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. 정상영 명예회장이 2002년 말 정몽헌 회장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정몽헌 회장의 장모인 김문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일부를 담보로 맡은 것으로 알려진 것도 KCC가 현대그룹의 앞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.

다만, KCC는 현대 돕기에 나선 것이 화근이 돼 2일째 주가가 급락하는 낭패를 보고 있다. 8월20일 KCC의 주가는 5%대의 하락률을 나타냈고 앞서 19일에도 2.31% 떨어지는 등 2일째 부진을 면치 못했다.

8월7일 이후 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현대엘리베이터도 19일 4.69% 하락 반전한 데 이어 20일에도 3%대 내림세이다. 다만, 20일 장 초반 KCC와 더불어 1-3%씩 동반 하락했던 현대상선, 현대상사, 현대오트넷은 장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강세로 전환됐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8/21>